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분석

- 메타평가 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

Analyzing the Status Quo of Local Government Evaluations

- With a Meta Evaluation Model -

박희정* · 차경엽 · 정제련 · 이혜승 · 조형석**

Park, Hee-Jeong · Cha, Kyung-Yup · Chung, Je-Ryun ·

Lee, Hye-Seung · Cho, Hyoung-Suk

Ⅰ 목 차 Ⅰ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분석
-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해 지자체 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평가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가여건, 평가활동, 평가성과 등 메타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피평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 평가의 목적달성도가 매우 낮은 것을 방증(傍證)하며, 따라서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이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본다면 지

논문 접수일: 2008년 1월 4일

* 감사연구원 평가제도 연구총괄 팀장

** 감사연구원 연구관

자체 평가는 이들 두 가지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평가, 메타평가, 평가여건, 평가활동, 평가성과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citizens and experts regarding local government evaluations, to diagnose the problems with the evaluation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meta evaluation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local government evaluations. As a result,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cognitions of the evaluations from every aspect of meta evaluation including the conditions, activities and outcomes.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failed to provide the citizens with necessary information. The evaluation results did not provide feedback to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It means that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evaluations perfor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very low, and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hould be reviewed.

Given that the mission of local governments are to vitalize the local community and enhance the life quality of the citizens, local government evaluations should be based on a model that allows for effective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se two strategic goals.

□ Keywords: Local Government Evaluations, Meta Evaluation, Evaluation Conditions, Evaluation Activities, Evaluation Outcomes

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평가 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경우 동법의 제정으로 합동평가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자체평가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한편 2005년 8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개정에 따라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재정분석·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과 혁신과제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위해 ‘지방행정혁신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는 2006년 현재 200개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그러나 이처럼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장치로서 다양한 외부 평가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제도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 또는 ‘통제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만 가중시킬 뿐 당초의 제도 도입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적정한 메타평가모형을 구축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 연구들이 평가관리자의 입장에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모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데 실패한 점을 교훈 삼아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필요한 총계 데이터(aggregate data)의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즉, 주민과 평가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지자체 평가모형의 모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1) 특히,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166개에 이르고 있다(라휘문 외, 2007).

II. 이론적 검토

1. 메타평가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다른 평가의 평가(an evaluation of other evaluations)'로서 어떤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나 기존 연구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메타평가의 범주에 대한 규정은 학자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Stufflebeam(1974)은 형성적 조사연구와 비실증적 평가에 대한 평가도 메타평가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Cook & Gruger(1978)는 경험적 종합평가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메타평가로 규정함으로써 메타평가의 개념을 다소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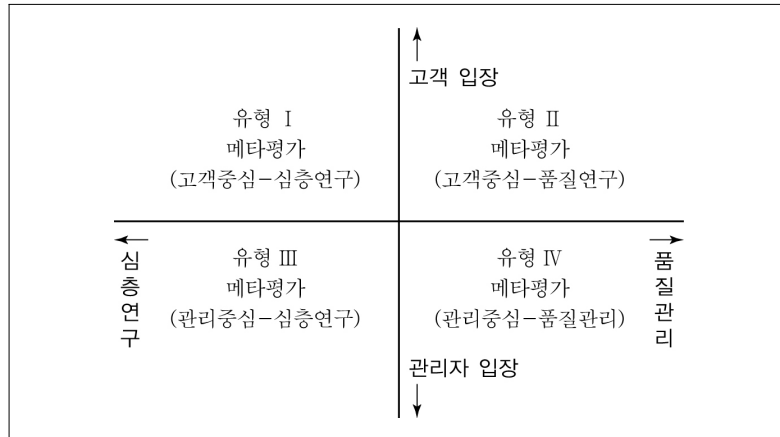
그리고 평가 목적이나 역할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듯이(Beyer & Trice, 1982; Smith, 1987; Ryan, 1988; Rogers, 1994) 메타평가에 대한 이해 또한 학자들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Cook & Gruger(1978)는 메타평가의 연구 전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 다른 사람의 평가자료를 구득하여 동일한 또는 상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재분석하는 것, 2) 평가자나 평가기관의 기술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 3) 조사연구에 대한 조사연구(research on research)로서 평가 설계나 측정에 대한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 등이 그 사례이다.

한편 Rogers(2000)는 메타평가의 유형을 1) 바람직한 평가의 필요충분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의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Scirven, 1975; Cook & Gruger, 1978; Chelimsky, 1987), 2) 당초에 의도하였던 평가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평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Kelly, 1987; McTaggart, 1991; House, 1992), 3) 평가관리자의 입장에서 평가의 유용성(evaluation utilization)을 평가하는 것(Barkdoll, 1980; Burry et. al, 1985; Torres, 1991; Crossfield & Macinsh, 1992; Cousins & Leithwood, 1993, Funnell & Harrison, 1993; Owen, 1993)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의 범주를 경험적 평가에 대한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형성적 평가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되, 메타평가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앞서의 문헌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2가지 차원(평가내용, 평가초점)을 고려하여 4가지 메타평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그림 1〉 메타평가의 4가지 유형



먼저, 유형 I의 메타평가는 평가초점이 고객이며 평가내용은 평가자의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각 평가단계에서 고객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얼마나 제고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들(Callahan, 2004; Holzer & Kloby, 2005)은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유형 II의 메타평가에는 고객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입장에서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였는지 평가하는 연구들(Weiss, 1983; McCorcle, 1984)이 속한다.

한편, 유형 III의 메타평가는 평가초점이 관리자이며 평가내용은 해당 평가의 목표달성 여부와 유용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거나 재평가하는 경우(House et al., 1978; Cousins, 1986; Mackay, 1992, 허만형 외, 2007)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유형 IV의 메타평가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해당 평가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살펴보는 유형(Cook, 1974; Hegarty, 1988; 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a)이다.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괄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한 도구이자, 외부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의 수단이다. 즉, 정책이나 사업, 활동 등의 개선을 가져옴으로써 세금 가치(Value for Money)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해준다(박희정·조성호, 2004). 우리나라 공공 부문 평가의 기본이 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4.1 시행)의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능

물성·효과성(내부개선) 및 책임성(외부적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도 이러한 행정기관 평가의 실시 목적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활동이 지역주민에게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환류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정책 품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현재 200여 개의 각종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평가가 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현황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평가영역을 수직적 위계에 따라 과정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로 구분하거나(Sanderson, 1998), 평가주체(외부평가, 내부평가), 평가시기(사전, 과정, 사후), 평가수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박희정, 2000). 또한 평가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사업평가형, 서비스평가형, 기관평가형로 분류하기도 하며(라휘문, 2004), 평가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심사평가형, 성과평가형, 기관평가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박희정·박해육, 200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기존의 심사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되면서 같이 변화를 겪었으며,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으로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과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의 단초가 마련되었다(박희정·박해육, 2005).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6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개별평가 및 합동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현행 기본법의 분류에 따르면 지자체 평가 중에서 합동평가와 자체평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모든 평가제도가 개별평가로 통칭되고 있다.

실제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합동평가와 자체평가 외에도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분석·평가, 지방행정혁신평가, 전자정부추진평가, 지방공기업평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사업추진실적평가,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종합평가, 농촌진흥청의 지방농촌진흥사업평가

등 총 166개에 이르고 있다(라휘문 외, 2007).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166개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관별로는 행정자치부(42개), 보건복지부(27개), 소방방재청(15개), 환경부(12개), 건설교통부(10개), 여성가족부(9개), 문화관광부(7개), 농림부(6개), 해양수산부(6개), 노동부(5개), 농촌진흥청(4개), 산업자원부(3개), 국가청소년위원회(2개), 식품의약품안전청(2개), 재정경제부(2개) 등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개별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평가대상별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31개,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경우 43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 92개이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주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에서 그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되는 평가제도는 50개, 그렇지 않은 평가제도는 116개이다.

3.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선행연구 검토

166개(2007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평가제도는 4개 정도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합동평가와 자체평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평가, 그리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평가가 그것이다.

이들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김현구·박희정(2001, 2003)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라휘문(2004), 이혜영 외(2004), 박희정·박해육(2005), 오영균(2006) 등이 있으며, 지방행정혁신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라휘문(2007), 그리고 지방재정분석에 대한 메타평가는 원윤희·임성일(2004), 우명동(2006)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평가 등 다양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가 수행되었으나 여기서는 앞서 살핀 4가지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 연구 중에서 유형 I에 속하는 메타평가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박해육·류영아(2006)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에 대한 실태 분석과 제도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 II의 메타평가 또한 자체평가에 있어서 주민만족도분석을 다룬 오영균(2006)의 연구 외에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유형 III의 메타평가로는 박희정·박해육(2005), 라휘문(2007), 우명동(2006) 등이 있으며, 유형 IV의 메타평가는 김현구·박희정(2001), 라휘문(2004), 이혜영 외(2004) 등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기술적 역량이나 평가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 연구는 대부분 지방행정서비스나 시책의 실제 고객인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의 거버넌스나 유용성을 분석하는 데 소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있다면 평가초점 또한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평가의 메타평가 또한 평가시스템의 관리자 입장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객 등 이해관계자 관점의 메타평가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먼저, 내용적 범위는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 틀 설정, 2) 현행 평가제도의 현황 분석,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주민과 평가전문가)의 인식조사 및 분석, 4)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선과제 도출 등으로 한정한다.

또한 대상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외부평가제도들 중에서 합동평가, 지방행정혁신평가, 지방재정분석·평가 등 대표적인 3가지 평가제도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문헌조사와 서베이를 활용하였다. 바람직한 메타평가모형의 설정을 위해 기존의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였고 새롭게 설정한 메타평가모형에 의한 실증분석을 위해 서베이를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다만, 서베이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평가요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계나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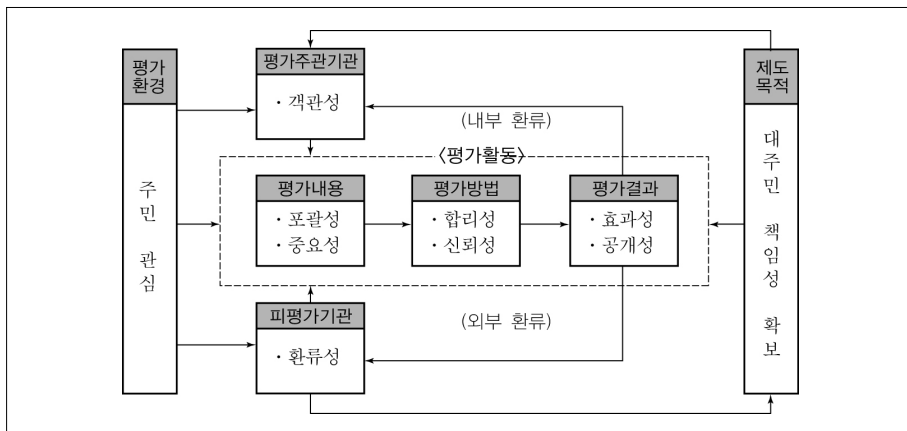
2. 메타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관계자 즉, 주민과 평가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평가의 관리적 효율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크게 차별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모두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자치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종합평가모형의 설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개별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는 해당 평가시스템의 운영 개선을 위해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지자체 평가시스템의 종합적인 재설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가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므로 개별 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메타평가 분석모형(〈그림 2〉 참조)은 유형Ⅱ와 유형Ⅲ 메타평가의 혼합형에 가깝다. 즉, 고객 관점에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파악하고 평가내용의 적절성을 진단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접근 경험과 이에 따른 자치행정의 인지도를 파악한 점에서 유형Ⅱ의 메타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평가내용의 포괄성, 평가방법의 합리성과 신뢰성, 평가결과의 효과성, 환류 노력 등을 분석한 점에서 유형Ⅲ의 메타평가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메타평가 분석모형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환경’측면에서 주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지자체 평가에 대한 주민 수요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내용’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 여부(포괄성)와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의 중점 평가분야 포함 여부(중요성)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방법’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합리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신뢰성) 정도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성과로서 ‘평가결과’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의 달성도(효과성)와 평가결과의 주민공개 노력(공개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주관기관’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의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객관성)을 평가하고, ‘피평가기관’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반영 노력(환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3. 설문지 구성 및 표본추출 방법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은 앞 장에서 설정한 메타평가 모형에 따라 자치행정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평가에 참여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주민 조사는 지자체 운영 및 성과 측면을, 전문가 조사는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운 지자체 종합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주민 및 전문가에게 새로운 종합평가에 대한 필요성, 평가가 실시될 경우 평가주관기관 및 평가결과 공지방법 등에 관한 것을 설문문항에 포함하였다.

주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주민 대상 설문은 총 10개 문항(일반사항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고(<별첨> 참조), 이 중에서 지자체 평가의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직접 이용한 설문항목은 지자체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정도,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의 중점 평가분야, 자치행정 인지도, 평가결과의 주민공개노력 등 5개 문항이다.

전문가 대상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별첨> 참조), 이 중에서 지자체 평가의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직접 이용한 설문항목은 평가주관기관의 객관성,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 여부,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의 중점 평가분야, 지방

자치단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의 신뢰성,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의 달성 여부,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반영노력 등 7개 문항이다.

〈표 1〉 주요 설문내용

구분	평가 측면	주민 대상 설문	전문가 대상 설문
평가 여건	평가 환경	- 주민의 관심 정도 (주민 1번)	-
	평가주관기관	-	- 평가주관기관의 객관성 (전문가 15번)
평가 활동	평가 내용	-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 (주민 9번) -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의 중점 평가분야 (주민 3번)	-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 여부 (전문가 3번) 및 미흡한 이유(전문가 4번) -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의 중점 평가분야 (전문가 2번)
	평가 방법	-	-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 (전문가 5번), 불합리한 이유 (전문가 6번) -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의 신뢰성(전문가 7번)
평가 성과	평가 결과	- 자치행정 인지도(주민 4번) - 평가결과의 주민공개노력(주민 8번)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의 달성 여부(전문가 10번) 및 달성되지 않는 이유(전문가 11번)
	피평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반영노력(전문가 9번)

한편, 본 연구의 표본추출 방법은 주민과 전문가 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먼저 주민 조사의 경우 개인의 특성보다 지자체 운영성과에 대한 인식 조사로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통계적 표본추출방법인 층화-계통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반면, 전문가 조사의 경우에는 지자체 평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표본설계를 하지 않고 표본수를 할당하여 유의추출하는 방법인 할당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인구비례에 의해 지역별로 표본크기를 선정(층화추출)한 후 지역 내 주민 표본 선정을 위해 전화번호부에 있는 개인리스트를 동일한 간격으로 추출(계통추출)하였다.²⁾ 이를 통하여 얻은 시·도별 표본추출현황은 다음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2) 표본설계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로 조사되었다.

〈표 2〉 시·도별 표본추출 현황

(단위: 명)

지 역	남 자	여 자	계
서 울	109	114	223
부 산	40	41	81
대 구	26	28	54
인 천	25	26	51
광 주	14	15	29
대 전	14	15	29
울 산	9	10	19
경 기	91	92	183
강 원	16	17	33
충 북	15	16	31
충 남	21	20	41
전 북	22	22	44
전 남	22	24	46
경 북	30	31	61
경 남	32	33	65
제 주	5	5	10
계	491	509	1000

전문가 조사는 지자체 및 평가 전문가그룹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원 411명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약 600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후 조사에 응답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총 8일간 실시하였다.

IV.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 분석

1. 응답자 특성

주민 조사 응답자는 1,029명으로 기존 목표인 표본 수 1,000명을 약간 상회하였고, 전문가 조사 응답자는 100명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주민의 지역별 특성은 경기권(26.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울(21.5%), 경남권(16.4%) 순이었고 또한 규모별로는 대도시(47.7%)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44.3%), 읍·면(8.3%) 순이었다.

주민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40.8%)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39.8%), 중졸(13.1%)의 순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은 가정주부(27.1%), 화이트칼라(26.9%), 자영업자(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50대 이상(32%)이 가장 많았으며 30대(24.2%), 40대(22.8%)순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³⁾ 성별은 남(49.3%)·여(50.7%)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 응답자는 대부분 대학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합동평가, 지방재정분석·평가, 지방행정혁신평가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과반수(52%)를 넘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교수(69%), 연구원(22%), 공무원(6%)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 분석

1) 평가여건 분석

(1) 평가환경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평가여건은 '평가환경'측면과 '평가주관기관'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환경'의 분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인식을 기초로 살펴볼 수 있다.

³⁾ 2005년 인구총조사의 20세 이상 연령별 분포는 50대 이상 33.2%, 40대 23.0%, 30대 23.5% 등의 순이므로 본 조사의 표본이 우리나라 20대 이상의 인구분포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결과 주민의 36.3%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이상인 55.1%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남성 응답자가,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역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읍·면지역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낮은 원인은 자치행정의 운영성과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면에서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나 협조가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는 지자체 평가의 우수사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언론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평가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관한 관심도 (특성별)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약간 관심이 있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④+⑤	계	
전 체	1,029	15.6	20.7	36.3	8.6	42.0	13.1	55.1	100.0	
성 별	남 자	507	19.2	22.1	41.3	8.2	37.5	13.0	50.5	100.0
	여 자	522	12.1	19.3	31.4	9.0	46.3	13.3	59.6	100.0
연 령 별	20 대	216	1.6	11.7	13.3	6.9	56.3	23.5	79.8	100.0
	30 대	249	7.7	19.3	27.0	10.2	48.9	13.9	62.8	100.0
	40 대	235	20.1	27.6	47.7	7.2	38.2	7.0	45.1	100.0
	50세 이상	329	27.6	22.6	50.2	9.6	30.0	10.1	40.2	100.0
지 역 별	대 도 시	488	13.3	20.9	34.1	8.7	43.3	13.8	57.1	100.0
	중 소 도시	456	15.0	21.4	36.4	8.9	41.4	13.3	54.7	100.0
	읍 / 면	85	32.6	15.2	47.8	6.4	37.4	8.4	45.8	100.0

(2) 평가주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여건의 한 측면으로서 평가주관기관의 객관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기관에서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관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 100명 중 56명(56.0%)이 ‘독립기구’라고 답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서 평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자치부(16.0%), 민간단체(11.0%), 지방의회(8.0%), 지방자치단체협의회(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가 높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에서 행정자치부의 부족한 관리능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관리능력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 4〉 종합평가 주관기관 (특성별)

(단위: %)

구 분		사례수	행 정 자치부	지자체 협의회	지 방 의 회	독 립 기 구	민 간 단 체	기 타	계
전 체		100	16.0	7.0	8.0	56.0	11.0	2.0	100.0
평가 경험	유	52	23.1	9.6	7.7	57.7	1.9	0	100.0
	무	48	8.3	4.2	8.3	54.2	20.8	4.2	100.0

평가여건에 대한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등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등 외형적 평가여건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고 평가주관기관(행정자치부)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질적인 여건 조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가활동 분석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활동 분석은 ‘평가내용’측면과 ‘평가방법’측면을 고려하였다. 이 중 ‘평가내용’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가(포괄성)와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의 중점 평가분야를 포함하고 있는가(중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평가내용

전문가 조사 결과 “현행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19.0%)보다 부정적 응답(5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현행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현행 평가제도의 지자체 운영성과 전반 정보제공 정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그렇지 없다	⑤ 전혀 그렇지 없다	④+⑤	계	
전 체	100	2.0	17.0	19.0	31.0	41.0	9.0	50.0	100.0	
평가 경험	유 무	52 48	3.8 0	21.2 12.5	25 12.5	28.6 33.3	32.7 50.0	13.5 4.2	46.2 54.2	100.0 100.0

또한 “현행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5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무원 입장에서의 평가여서(48.0%)’와 ‘중앙정부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24.0%)’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일부 업무만 평가하므로(14.0%)’, ‘평가결과의 홍보가 미흡하여(8.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평가체계 및 방법의 잘못, 평가항목이 피상적 성과수준만 측정할 뿐 실제 업무개선에 기여 부족, 평가지표와 방법의 부실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들이 각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기 보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임사무나 보조사업에 대한 획일적 기준의 적용을 강요하기 때문에 평가의 합목적성이 낮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평가를 통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일부업무만 평가	공 급 자 위 주 의 평 가	중앙정부의 관심사 에 초	평가결과의 홍보미흡	기 타	계	
전 체	50	14.0	48.0	24.0	8.0	6.0	100.0	
평가 경험	유 무	24 26	25.0 3.9	29.2 65.4	37.5 11.5	0 15.4	8.3 3.9	100.0 100.0

주민 조사 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대 다수(97.7%)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주민들 또한 지자체 운영성과를 알 수 있는 포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평가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탓도 있을 것이나 기존의 지자체 평가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제공하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표 7>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

(단위: %)

구 분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전 체	1029	97.7	2.2	0.1	100.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주민 응답자 중 ‘주민의 삶의 질(51.6%)’개선에 가장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활성화 지원(15.3%)’, ‘단체장의 경영능력 제고(14.3%)’의 순으로 의견이 높았다.

<표 8> 지역발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점개선사항 (주민 대상)

(단위: %)

구 분	사례수	주 민 의 삶의 질	기업하기 좋은환경	단체장의 경영능력	재 정 관 리	조직 및 인 사	기 타	계
전 체	1,029	51.6	15.3	14.3	11.8	6.4	0.6	100.0

전문가 집단에게 동일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단체장의 경영능력 제고(40.0%), 주민의 삶의 질(33.0%), 효율적 재정관리(10.0%), 지역 활성화 지원(9.0%), 조직 및 인사관리(4.0%)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의 경우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충, 지자체간 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한 분권화, 주민의 지방정부 통제 등을 지적하였다.

<표 9> 지역발전 선도역할을 위한 중점 개선분야 (전문가 대상)

(단위: %)

구 분	사례수	단체장의 경영능력	재 정 관 리	조 직 / 인사관리	기업하기 좋은환경	주 민 의 삶의 질	기 타	계	
전 체	100	40.0	10.0	4.0	9.0	33.0	4.0	100.0	
평가 경험	유	52	40.4	5.8	3.9	9.6	36.5	3.9	100.0
	무	48	39.6	14.6	4.2	8.3	29.2	4.2	100.0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응답 차이에 대한 통계분석(χ^2 검증⁴⁾) 결과 주민과 전문가집단 간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87.529$, $df=6$). 즉,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개선분야에 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주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활성화'가 지자체가 관심을 둘 분야라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경영능력'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지자체의 지역발전 선도 역할을 위한 중점 개선분야

(단위: %)

구 분	사례수	단체장의 경영능력	재 관 리	조 직/ 인사관리	기업하기 좋은환경	주 민 의 삶 의 질	기 타	계
주 민	1,029	14.3	11.8	6.4	15.3	51.6	0.6	100.0
전 문 가	100	40.0	10.0	4.0	9.0	33.0	4.0	100.0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합동평가의 평가내용이 '주민의 삶의 질' 및 '지역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행정혁신평가는 '단체장의 경영능력'이나 '조직 및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분석·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합동평가의 경우에도 개별 평가대상 시책이 위임사무나 보조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지자체의 종합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삶의 질 개선'이나 '지역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요소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평가제도의 도입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평가방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활동 분석을 위해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이 합리적인가(평가방법의 합리성)와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평가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이 합리적이

4) 응답의 실제 빈도수와 예상 빈도수를 비교하는 통계분석기법

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18.0%)보다 부정적인 응답(43.0%)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계	
전 체	100	2.0	16.0	18.0	39.0	40.0	3.0	43.0	100.0	
평가 경험	유	52	3.5	19.2	22.7	34.6	38.5	3.9	42.4	100.0
	무	48	0	12.5	12.5	43.8	41.7	2.1	43.8	100.0

또한 현행 지자체 평가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4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24명(55.8%)이 ‘평가지표 등 평가도구의 부적절’을 지적하였고, 이외에 ‘과학적 분석 노력 부족’(18.6%),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11.6%),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노력 부족’(11.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서 ‘계량적 평가의 한계’를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합동평가에 대한 김현구 외(2003)의 연구에서는 시·도별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평가지표나 설문문의 문체와 함께 현장평가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 대한 라휘문(2007)의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의 성과지향성, 평정방법의 합리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방법의 합리성은 지표 등 평가도구의 문체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12〉 평가절차 및 방법이 불합리한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평가 도구 부적절	데이터 신뢰성 부족	과학적 분석 노력 부족	기 타	계	
전 체	43	11.6	55.8	11.6	18.6	2.3	100.0	
평가 경험	유	22	4.6	54.5	22.7	18.2	0	100.0
	무	21	19.1	57.1	0	19.1	4.8	100.0

평가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

도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31.0%)이 부정적 응답(28.0%)보다 높게 나타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외에도 평가를 통해 의도하였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김현구 외, 2003)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표 13> 지자체 평가결과의 신뢰 정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계	
전 체	100	1.0	30.0	31.0	41.0	27.0	1.0	28.0	100.0	
평가 경험	유	52	1.9	32.7	34.6	40.1	23.1	1.9	25	100.0
	무	48	0	27.1	27.1	41.7	31.3	0	31.3	100.0

결론적으로 지자체 평가의 절차와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 운영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평가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성과 분석은 ‘평가결과’측면과 ‘피평가기관’측면을 고려하였다. 이 중 ‘평가결과’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였는가(평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성과가 어떠한지 얼마나 알고 있는가(자치행정 인지도), 그리고 평가결과의 주민공개 노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피평가기관’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를 업무개선을 위해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즉, 환류성(feedback)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평가결과

먼저 '평가결과'측면에서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가 당초의 도입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15.0%)보다 부정적인 응답(44.0%)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들이 해당 평가의 도입 목적 및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행 지자체 평가가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4>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의 도입목적 및 취지 달성 정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계
전 체	100	2.0	13.0	15.0	41.0	39.0	5.0	44.0	100.0
평가 경험 유 무	52 48	3.9 0	13.5 12.5	17.4 12.5	44.2 37.5	30.8 47.9	7.7 2.1	38.5 50.0	100.0 100.0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가 당초의 도입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 결과, '평가 결과 환류노력 부족(37.0%)', '개선보다는 서열화에 관심(28.0%)', '평가역량의 부족(16.0%)', '결과지향성 부족(투입 및 과정에 중점)(14.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자료의 부족, 지역특성 미고려, 목적 및 취지의 이중성, 그리고 단체장의 관심 및 이해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기존 연구(김현구 외, 2003; 라휘문, 2007)에서도 합동평가나 지방행정혁신평가가 평가 주관기관이나 피평가기관으로 원활하게 환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재정 분석·평가를 제외하고 기존의 지자체 평가들은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는 평가모형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나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할 수는 있을지라도 평가를 통해 생산된 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아 이를 통해 관련 시책이나 서비스를 직접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방증(傍證)해 준다.

〈표 15〉 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결과지향성 부 족	평 가 역 량 부 족	평 가 결 과 환 류 부 족	개선보다는 서 열 화	기 타	계	
전 체	100	14.0	16.0	37.0	28.0	5.0	100.0	
평가 경험	유	22	13.5	11.5	34.6	32.7	7.7	100.0
	무	21	14.6	20.8	39.6	22.9	2.1	100.0

그리고 ‘평가결과’측면에서 주민들의 자치행정 인지도에 대한 질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잘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24.8%)보다 ‘알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66.1%)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행정 평가결과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수준도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지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④+⑤	계	
전 체	1,029	2.4	22.4	24.8	9.0	46.2	19.9	66.1	100.0	
연 령 별	20대	216	0.8	10.6	11.4	7.1	48.0	33.6	81.6	100.0
	30대	249	1.8	16.4	18.2	7.9	49.4	24.6	73.9	100.0
	40대	235	4.4	25.6	29.9	8.6	49.2	12.3	61.4	100.0
	50세 이상	329	2.6	32.4	35.0	11.5	40.5	13.0	53.4	100.0

이처럼 지자체 운영성과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평가주관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노력이 미흡한 탓이 클 것이다. 실제 평가결과의 공개성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25.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74.2%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실제로 평가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의 평가결과 공개는 1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피평가기관인 각 지자체들은 주로 포상 대상이 된 정책분야만 홍보하지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데는 소홀한 실정이다(김현구 외, 2003).

한편,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두 배에 가까운 인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7>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접근 경험 (특성별)

(단위: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전 체	1,029	25.5	74.2	0.3	100.0
지역 별					
대 도시	488	25.9	73.7	0.4	100.0
중소 도시	456	21.2	78.5	0.3	100.0
읍 / 면	85	46.5	53.5	-	100.0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결과의 환류노력 미흡 등으로 당초의 도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자치행정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도 미흡하여 현 제도의 운영방식으로는 책임성 확보장치로서의 기능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평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성과의 중요한 요소로서 ‘피평가기관’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반영노력, 즉 환류성(feedback)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업무개선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17.0%)보다 부정적인 응답(51.0%)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가들은 지자체 평가결과의 활용노력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활용 정도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그렇지 없다	⑤ 전혀 그렇지 없다	④+⑤	계
전 체	100	1.0	16.0	17.0	32.0	47.0	4.0	51.0	100.0
평가 경험									
유 무	52	1.9	17.3	19.2	23.1	51.9	5.8	57.7	100.0
유 무	48	0	14.6	14.6	41.7	41.7	2.1	43.8	100.0

이처럼 지자체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활용노력이 미흡한 결과(〈표 18〉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현행 지자체 평가의 목적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전반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지자체 평가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평가적 성격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평가의 틀은 메타평가의 유형별 분류(〈그림 1〉 참조)를 따를 때 유형Ⅱ와 유형Ⅲ 형태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여건 측면에서 ‘평가환경’ 변수로서 주민의 관심도와 ‘평가주관기관’ 변수로서 평가주관기관의 객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평가주관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신뢰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평가활동 측면에서는 ‘평가내용’ 변수로서 지자체 평가내용의 포괄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가내용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주민과 전문가집단이 공통적으로 현행 지자체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의 중점 평가분야로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지역 활성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평가내용 면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평가활동 측면에서 ‘평가방법’ 변수로서 지자체 평가의 절차와 방법의 합리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집단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긍·부정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평가성과 측면에서는 ‘평가결과’ 변수로서 주민의 지자체 운영성과 인지도, 평가결과의 공개노력, 평가제도의 목적달성도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평가주관기관의 평가결과 공개노력 미흡으로 주민들의 자치행정 인지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전문가들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등을 이유로 지자체 평가제도의 목적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평가성과 측면에서는 ‘피평가기관’ 변수로서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반영노력(환류성)

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지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피평가기관이 평가결과 미진사항 등을 업무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메타평가모형에 입각한 지자체 평가의 운영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가여건, 평가활동, 평가성과 등 메타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피평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 평가의 목적달성도가 매우 낮은 것을 방증(傍證)하며,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향후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모형은 지자체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앙정부 입장에서 국가정책의 지방적 구현 목적의 평가가 아니라 지방발전을 위한 전략적 평가모형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외부평가모형으로서 이러한 전략적 평가모형은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모형과 효과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a).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초연구」.
 _____ . (2006b). 「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
- 공병천. (2005). 상위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고 :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4(1): 66-96.
- 김영오. (200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16(3): 67-86.
- 김현구·박희정 (200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제도와 운영. 『지방행정연구』. 14(2): 1-43.
- 김현구·박희정 (2003).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의 실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1-43.
- 송건섭·이근수·윤종갑. (2005).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만족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 라휘문. (200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의 설계와 적용 그리고 교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1): 29-53.
- 라휘문. (2004). 기초자치단체 평가모형에 대한 개념적 구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라휘문. (2007). 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의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지방행정연구』. 21(2): 199-224.
- 라휘문 외. (2007). 지방자치단체평가의 발전방향: 통합모형의 구축을 중심으로. 『감사원 평가연구원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공동토론회 자료집』.
- 박해육·류영아. (2006). 「자체평가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희정. (2000).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희정·조성호. (2004).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 박희정·박해육. (200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
- 오영균. (2006). 지방정부 자체평가에서의 주민만족도분석에 관한 사례 연구. 『지방행정연구』. 20(3): 3-20.
- 오택섭·최현철. (2003).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 나남신서.
- 우명동. (2006). 지방재정투명성 측정지표의 특성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논집』. 11(2): 201-228.
- 원윤희·임성일. (2004).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8(2):

149-172.

- 이광희 · 김길수. (2003).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혜영 · 김건위 · 박해육. (200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 - 정책집행론적관점. 『지방자치학회보』. 16(3): 43-65.
- 최태성 · 김성호. (2001). 『사회과학 자료분석 : SPSS 10.0 활용』. 서울: 다산출판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지방재정분석 편람』.
- 한표환 · 박희정. (1999).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자치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개발 연구』.
- 허만형 · 김주환 · 공동성 · 이석환 · 고길근. (2007).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사례분석』. 제79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2007a).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기자브리핑 자료.
- 행정자치부. (2007b).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매뉴얼』.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6).
- Barkdoll, G. L. (1980). Type III evaluation : consultation and consensu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2): 174-179.
- Beyer, J. M., & Trice, H. M. (1982). The Utilization Process : A Conceptual Framework and Synthesis of Empirical Finding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7: 591-622.
- Burry, J., and others. (1985). Organizing Evaluation for Use as a Management Tool.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11(1): 131-157.
- Chelimsky, E. (1987). The politics of program evaluation. In D.S.Cordray, H.S.Bloom, & R.J.Light (Ed.), *Evaluation Practice in Review*(pp. 5-21). San Francisco : Jossey-bass.
- Cook, T. D. (1974).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secondary evaluation. In A. Michael W, M. J. Subkoviak, & J. Henry S. Lufler (Ed.), *Educational evaluation: Analysis and responsibility*. Berkeley, DA: McCutchan Publishing.
- Cook, T. D., & Gruder, C. L. (1978). Meta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Quarterly*. 2(1): 5-51.
- Cousins, J. B., & Leithwood, K. A. (1986). Current Empirical Research on Evaluation Utiliz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6(3): 331-364.
- Cousins, J. B., & Leithwood, K. A. (1993). Enhancing Knowledge Utilization as a Strategy for School Improvement. *Knowledge : Creation, Diffusion, Utilization*. 14(3 March 1993): 305-333.

- Crossfield, L., & Macintosh, R. (1992). The Influence of Evaluation on Decision-Making in the 1991-1992 Commonwealth Government Budge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asian Evaluation Society. Melbourne.
- EFQM. (1999). Introducing Excellence. Brussels : EFQM.
- Funnell, S., & Harrison, C. (1993). Utility is in the Eye of the User : Evaluating the Usefulness of Program Evaluation. 199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asian Evaluation Society. Sydney.
- Hatry, Harry P. (1999). Performance Measurement. Washington, D. C. : The Urban Institute Press.
- Hegarty, T. W., & Sporn, D. L. (1988). Effective Engagement of Decisionmakers in Program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1: 335-339.
- Holzer, M., & Kloby, K. (2005). Public performance measurement: An assessment of the state-of-the-art and models for citizen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54(7): 517-532.
- House, E. (1992). Multicultural Evaluation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anadian Journal of Program Evaluation. 7(1): 133-156.
- House, E. R., Galss, G. V., McLean, L. D., & Walker, D. F. (1978). No simple answer : Critique of the Follow-Through evaluation. Harvard Education Review. 48: 128-160.
- Kelly, R. M. (1987). The Politics of Meaning and Policy Inquiry. In D. J. Palumbo(Ed.), The Politics of Program Evaluation(pp. 270-29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ackay, K. (1992). The use of evaluation in the budget process.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1(4): 436-439.
- McCorcle, M. D. (1984). The Operation Was A Success But The Patient Died : A Critique of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Problem-Solving Training Program for Adolescent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7: 193-198.
- McTaggart, R. (1991). When Democratic Evaluation Doesn't Seem Democratic. Evaluation Practice. 12(1): 9-21
- Owen, J. M. (1993). Towards a Meta-model of Evaluation Utiliz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asian Evaluation Society. Brisbane.
- Palumbo, D. J., & Nachmias, D. (1983). The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Evaluation: Is There An Ideal Paradigm?. Policy Sciences. 16: 67-79.
- Rogers, P. J. (1994). Evaluating approaches to program evaluation : the development

- of a new theoretical framework and its application to the utilization-focused approach to evaluation. Research Seminar Series. Department of Policy, Contest and Evaluation Studies, University of Melbourne.
- Rogers, P. J. (2000). Meta-evaluation bibliography. Available on www.scu.edu.au.
- Ryan, A. G. (1998). Program Evaluation Within The Paradigms: Mapping The Territory. *Knowledge : Creation, Diffusion, Utilization*. 10(1 September): 25-47.
- Sanderson, I. (1998). Beyond Performance, Assessing 'Value' in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tudies*. 24(4).
- Scriven, M. (1975). Evaluation Bias are Its Control(4). Collage of Evaluatio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Kalamazoo, Michigan.
- Smith, N. L. (1987). Toward the Justification of Claims in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0: 309-314.
- Stufflebeam, D. (1974). Meta-evaluation. Kalamazoo, MI: Evaluation Center i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Occasional Paper Series #3.
- Torres, R. T. (1991). Improving the Quality of International Evaluation : The Evaluation as Consultant-Mediator.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4: 189-198.
- Weiss, C. H. (1983). Toward the Future of Stakeholder Approaches in Evaluation. In Kryk(Ed.), *Stakeholder-Based Evaluation*(pp. 83-96). San Francisco : Jossey-bass.

〈별첨〉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관계자조사 설문지

I. 주민 대상 설문지

SQ1. 성 별 : 1. 남자 2. 여자

SQ2. 실례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20세 미만 면접중단**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와 중점개선사항

문 1) ○○님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 | |
|--------------|--------------|
| 1. 매우 관심이 있다 | 2. 약간 관심이 있다 |
| 3. 중간이다 | 4. 별로 관심이 없다 |
| 5. 전혀 관심이 없다 | |

문 2)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 이후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님은 지방자치 실시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기여하였다 | 2. 약간 기여하였다 |
| 3. 중간이다 | 4.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
| 5.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 |

문 3) ○○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단체장의 경영 능력 | 2. 효율적 재정관리 |
| 3.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 4. 지역활성화 지원 |
|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6. 기타 (적을 것 : _____) |

2. 지방자치단체 운영 성과에 대한 정보접근성

문 4) ○○님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성과가 어떠한지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 중간이다
 4.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5. 전혀 알지 못한다
- 문 6)으로 갈 것
- 문 5)로 갈 것

문 5) (문 4)에서 '알지 못한다(4, 5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노력 미흡
2. 관련 정보의 소재 파악 어려움
3.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4. 너무 바빠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3.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와 책임성 제고

문 6) ○○님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해 누가 가장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의회
3. 담당 공무원
4. 지역주민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 7)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군정, 구정)을 잘못 운영하였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통해 해임시켜야 한다
3. 해당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하여야 한다
4. 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

자료 분류 용 질문

DQ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4.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5. 가정주부
6. 학생
7. 무직
8. 기타(적을 것 : _____)

DQ2)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1. 초등졸이하
2. 중 졸
3. 고 졸
4. 대졸(전문대 포함)
5. 대학원 재학 이상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I. 전문가 대상 설문지

I. 지방자치단체 성과와 중점개선사항

- 문 1)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 이후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방자치 실시가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기여하였다 | ② 약간 기여하였다 |
| ③ 중간이다 | ④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
| ⑤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 |
- 문 2)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단체장의 경영능력 | ② 효율적 재정관리 |
| ③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 ④ 지역활성화 지원 |
| 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⑥ 기타() |

II.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정보제공 수준

- 문 3) 현행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 ③ 중간이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문 4) (3번 질문에서 ④, ⑤번 응답자만 해당) 평가를 통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① 일부 업무만 평가하므로 |
| ② 공급자(공무원)입장에서의 평가여서 |
| ③ 중앙정부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 |
| ④ 평가결과의 홍보가 미흡하여 |
| ⑤ 기타() |

